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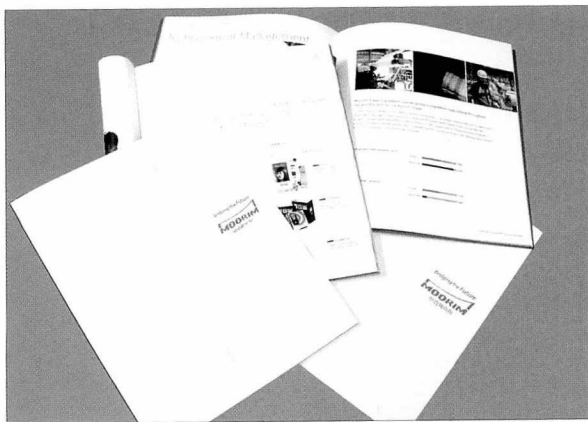
무림페이퍼 · 무림파워텍, 진주 가람초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무림페이퍼와 관계사인 에너지 전문기업 무림파워텍은 지난 5월 17일 진주 가람초등학교에서 양호실 리모델링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총 2천만원이 소요될 이번 사업은 현재 30㎡ 규모의 양호실을 2배인 60㎡로 늘리고 상담실, 처치실, 대기실, 안정실 등의 최신식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림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운동회와 체육비품 지원, 2009년에는 도서 및 급식비 지원 등 가람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과거에도 교실의 커튼을 교체하고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무림페이퍼와 무림파워텍은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산학협동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림페이퍼 · 무림SP, 브로슈어 제작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지난 5월말부터 2007년도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브로슈어는 모두 연례보고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무림페이퍼의 경우 제품소개 페이지를 늘려 카탈로그의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적 이미지를 통해 무림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무림SP는 고객의 생활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지 제품들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했으며, 제품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림SP가 추구하는 고객지향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한복협 관계자, 한국제지 온산공장 견학

한국제지는 지난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기록물처리 · 복사업협동조합 관계자 100여명을 온산공장으로 초청, 공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일행은 온산공장 4호기 복사용지 하이퍼CC 제품군의 생산공정을 견학했다. 4호기를 둘러본 직후에는 하이퍼CC 프루에 인쇄한 견본 사진을 나눠 가졌으며, 기술연구소 임직원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제지 온산공장, 1사 1교 자매결연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최근 다수의 사원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온산초등학교, 삼평초등학교와 자매결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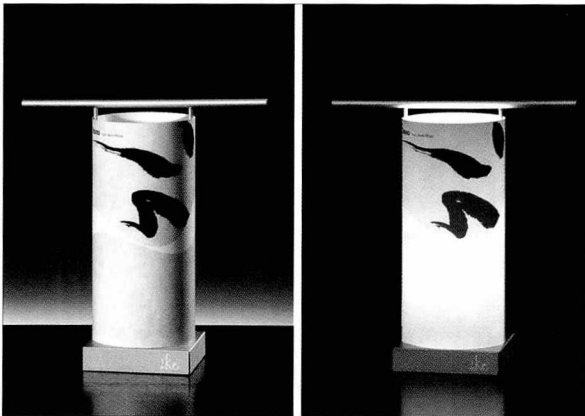
울산지역의 91개 회사와 107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1사 1교 운동은 기업과 학교와의 상호이해 및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제지는 자매결연 학교의 결손가정 및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공장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순석 공장장은 지난 5월 31일 울산상공회의소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1사 1교 자매결연식에 참석, 울산상공대상으로 받은 포상금을 자매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각각 1백만원씩 전달했다.

한국제지, 유성과 잉여열 교환 협약

한국제지는 지난 5월 21일 온산공장에서 울산지역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유성과 '대체에너지 공급 및 온실가스 감축 협약식'을 가졌다.

양사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올 8월까지 증기 공급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제지는 자체 생산하던 건조공정용 스팀을 유성의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면서 생산된 폐열로 대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성은 폐기물처리 시 생산되는 증기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폐기물 자원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제지의 벙커C유 사용량 감소에 따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1만톤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원특수지, 이코 디자이너 램프전 개최



삼원특수지는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원페이퍼갤러리 특별 전시코너, 명실에서 이코(ko) 디자이너 램프전을 개최한다.

전시작들은 독일 잔더스사에서 전세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빛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이코노(kono)라는 종이를 통해 작품화한 디자이너 램프다. 스페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수상작 중에는 우리나라의 이나미(스튜디오 바프 대표)씨의 작품도 있다.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피, 패키지 등 다양한 디자인 장르가 램프(빛)와 종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표현한 작품세계는 그 자체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감동과 신선한 미학을 연출한다. 특히, 전시장 전체에 암실효과를 낸 독특한 전시기법은 전시장과 작품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탄생시키고 '빛의 흐름'이라는 주제와 작품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제작에 사용된 이코노(kono)라는 양면 코팅지는 불투명도가 뛰어나 램프의 불빛을 켜고 끌 때 마다 대조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독특한 효과를 낸다.

일본 제지업계, 원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익감소

2007년 3월 3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표된 일본 제지업체들의 경영실적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매출신장은 이뤘지만 이익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제지업체들이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이익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가 및 물류비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주요 제지업체 중 미쓰비시페이퍼밀스, 호쿠에츠페이퍼밀스, 추에츠펄프&페이퍼만이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니폰페이퍼그룹, 다이오페이퍼, 미쓰비시페이퍼밀스, 호쿠에츠페이퍼밀스 등이 전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업체들은 구조조정, 업체 간의 제휴를 통한 원가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니폰페이퍼그룹은 렌고 및 수미모토와 전략적 제휴를, 토카이펄프&페이퍼는 토쿠슈페이퍼매뉴팩처링과의 합병을 통해 토쿠슈토카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올해 실질 GDP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제지연합회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종이와 판지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엔페이퍼 서울사무소 이전



이엔페이퍼 서울사무소가 지난 6월 25일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건물에서 도곡동 소프트포럼빌딩으로 이전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국번은 589에서 6209로 변경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5-7 소프트포럼빌딩 3,4층 대표전화 : 02-6209-6300